



수도권

느티나무

귀 달린 뱀이 나타나는 느티나무





지정번호	하남-6	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 48
지정년도	1982	37 ° 31 ' 10,33 " N
관리기관	경기	127 ° 13 ' 26,12 " E
수령	360년	
수고	25m	
흉고둘레	6.7m	

도로와 기관의 건물 사이에 있는 보호수(하남-6) 느티나무는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하산곡 4통 마을회관 뜰에 자라고 있다.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는 하산곡동이지만 행정기관 이름은 옆 동네 이름의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이다. 느티나무는 나무나이가 36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. 나무높이는 25m, 가슴높이둘레는 670cm, 밑동둘레는 830cm 정도이다. 나무 갓은 너비가 25m 가량이다. 원줄기는 높이 2.5m 정도에서 크게 4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가 갈라져 부채모양으로 펼쳐져 있다. 보호를 위하여 가지 줄기 몇 개가 절단되었고,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작은 흔적이 있으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. 1999년 교통사고로 줄기에 피해를 입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였다. 전승하는 이야기는 귀 달린 뱀과 관련이 있다. 옛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다. 한 어르신이 거센 비바람에 마을의 수호목인 느티나무가

쓰러질 것을 걱정하여 느티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서성거렸다. 그때 어르신의 발아래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. 머리에는 희한하게도 귀가 뿔쪽 솟아 있었다.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뱀이 아니었다. 이상하게 생긴 모양에 깜짝 놀란 어르신은 뒷걸음질해서 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. 그러다가 귀가 달린 뱀 모양이 너무도 특이하여 뱀에게 절을 하였다. 그 뒤 어르신의 집은 매년 농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벌었고, 식구들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였다. 또한 느티나무는 잎이 전체에서 한꺼번에 나면 풍년이 들고 부분적으로 나거나 조금씩 나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.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여겨 이 나무 앞을 지날 때 합장하고 지나간다. 제단이 설치된 곳은 펜스 설치가 없이 개방되어 있다. 벤치가 놓여 있다. 마을 입구의 마을회관 옆에 있어 여름철 휴식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.